

칼빈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

이동호(배재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칼빈의 경제 윤리 안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

1. 직업윤리와 노동윤리
2. 부와 재산에 대한 칼빈의 디아코니아적 이해

III. 칼빈의 디아코니아 경제윤리의 현대적 적용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3.07>

• ABSTRACT •

Johannes Calvin's Economic Ethics and *Diakonia*

Prof. Lee, Dong Ho(Pai Chai University)

This research delves into Calvin's Theology of *Diakonia* in order to discuss the socio-economic issues in terms of inequality, economic polarization and economic ethics. What does Calvin's *Diakonia* speak of toward the unequal society and the unfair world? In Calvin's theology, it is the unfair world, where *Diakonia* begins and where to do *Diakonia*. This research discusses *Diakonia* in Calvin's economic ethics with three broad themes. First of all, looking over the teachings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self-denial, which are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Calvin's economic ethics. Second, presenting Calvin's view of *Diakonia* about various themes related to socio-economic ethics. Lastly, this paper examines what Calvin's social, economic and ethical theology of *Diakonia* means to us and how it guides us to live today.

Key words: Johannes Calvin, Economic Ethics, *Diakonia*, Service and Charity, Vocational Ethics, Labor Ethics

I. 들어가는 말

칼빈의 신학을 지배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관념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정론이다.¹⁾ 이 세 가지 신학적인 관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다. 칼빈은 그의 저서들을 통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아래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인간의 모든 경제행위를 통해 나타내 고자 했던 그의 디아코니아 사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²⁾

칼빈의 디아코니아 신학은 일반 사회복지와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과 목적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목표를 가진 인본주의적 관점이라면 칼빈의 디아코니아 신학은 신본주의적 관점 아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기부정이라는 주제로 출발한다. 칼빈은 인간은 스스로 옳은 일을 할 수 없을뿐더러 선을 선택할 자유조차도 잃어버린 존재라고 설명한다.³⁾ 그의 유명한 예정론은 이런 입장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의를 선택할 자유조차 상실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 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예정론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선택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구원이 인간의 행위 혹은 그의 업적에 의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⁴⁾ 하나님께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1) 김기런, 『종교 개혁사』 (서울: 한들 출판사, 2011), 301.

2) 황봉환, 『기독교 경제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15-116.

3) 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중)』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197.

4) John Calvin,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과 그로인해 나타나는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칼빈의 선행에 대한 입장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주제아래 이해되어진다. 칼빈은 경제와 사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떠나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인간 사회나 경제의 수평적 무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경제 제도로 죄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⁵⁾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했을 때 교만과 허식이나 자랑이나 탐욕, 욕심, 명예 즉 자기를 사랑하는데서 나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온다고 이야기 한다.⁶⁾ 또한 주님의 명령을 좇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며,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보았다.⁷⁾ 칼빈은 선행이 자기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한다. 이 믿음이 이웃사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랑할 이웃과 사랑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

41-45.

5) 황봉환, 『기독교 경제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16.

6) 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중)』, 205.

7) 위의 책, 205.

나눔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인간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현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⁸⁾ 칼빈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칼빈은 우리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기에 선행을 행하고 또 그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한다. 다만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성을 가지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자, 약자와 강자, 우둔한 자와 재능 있는 자 등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즉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⁹⁾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8)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주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 들이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배신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중)』, 199.)

9)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323.

임을 알고 그를 도와야 한다.¹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주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마5:44)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이웃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¹¹⁾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아를 부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자아부정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한다. 이웃을 향한 자아부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멸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고 그를 인격체로 바라보게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아부정은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사랑을 베풀게 한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자아부정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다. 진정한 자아부정은 올바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을 자기의 의를 좇아 행하는 선한 행실로 보지 않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아 중심적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배하기 전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코 활기를 떨 수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살피며, 이익은 곧 탐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서로의 형제애와 사랑이 동반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29)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는 자기애에서 벗어나 이웃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

10) 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중)』, 211.

11) 위의 책, 212.

때문에 타인을 소홀히 되하지 말라는 말씀이다.¹²⁾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비로서 디아코니아는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II. 칼빈의 경제 윤리 안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

칼빈은 루터와는 다른 경제 환경 속에서 개혁활동을 펼치었다. 루터는 독일에서 농업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활동한 반면에 칼빈은 도시경제가 활력을 얻는 시기에 제네바에서 활동한 개혁가였다. 도시경제가 상업과 화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칼빈은 새로운 직업윤리와 노동윤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할 디아코니아적 경제윤리관을 확립한다. 특히 칼빈의 사회윤리학적 사상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끈 것이 그의 경제관이다. 경제문제들에 대한 칼빈의 견해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 미친 영향도 컸다. 칼빈의 경제관에서 특히 직업과 노동 그리고 임금과 부에 대한 사상은 단순한 경제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디아코니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칼빈의 경제윤리안에 나타난 직업과 노동의 목적은 바로 디아코니아였다.

1. 직업윤리와 노동윤리

1) 직업윤리

직업을 지칭하는 용어 독일어 'Beruf'나 영어 'calling'은 모두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³⁾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 역사에서 직

12)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2: 공관복음 II』 (서울: 신교출판사, 1978), 283.

13) Max Weber/김현욱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직업으로서의 학문/직업으로서의 정치/사회학 근본개념』 (서울: 동서문화사, 2010), 63.

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속적 활동을 나타내는 특수한 표현으로 사용한 인물이다.¹⁴⁾ 루터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그는 직업의 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위에 둬으로써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직업 활동의 가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특별히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일에 특권을 부여하는 직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¹⁵⁾ 그러나 루터는 이 새로운 직업 관념에 숨은 경제적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기존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 전통주의에 복귀한다. 루터가 주장한 직업 윤리 속에는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복종’과 ‘순응’이라는 한계성을 드러내었다.¹⁶⁾ 그러나 칼빈은 ‘복종’과 ‘순응’이라는 한계성에서 벗어나 근대적 직업 관념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의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명론을 발전시켰다.¹⁷⁾ 칼빈은 소명과 예정론을 연결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위치가 결정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소명 없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적 없는 삶이요 더 나아가 삶이 상실되어 질수 있다고 경고한다.¹⁸⁾

14) 강원돈,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성남: 민들레책방, 2005), 167.

15) 이동호,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제41집 (2018), 48.

16) 도로테 쾰레는 종교개혁 신앙에 근거한 직업소명론에 대해 반기를 제기한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난 소명론에 입각한 직업윤리와 노동윤리는 직업의 종류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채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덕” 그 자체가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틀에 박힌 무의미한 노동이 “소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착취적인 노동 상황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자리”라는 명어로 오히려 노동자를 억압하게 되었다고 본다. (Soelle - Sreffensky Dorothee, 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111.)

17) 김홍섭, “존 칼빈의 경제, 경영 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 유통, 물류에의 적용 관점,” 『한국향만경제학회지』 31권 (2015), 150.

18) 칼빈은 세속적인 직업과 관련된 소명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의

칼빈은 직업을 우리의 자아실현을 위한 장소로 생각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직업을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초소처럼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각 개인에게 주께서 지정해 주신 생활 방식이 있으며,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불렀다. 더 나아가 칼빈은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소명인 직업을 통해 일한다는 것은 생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적 행위가 된다.¹⁹⁾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영적 행위의 한 모습이 바로 디아코니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름의 특정한 자리에 위치시키셨고, 우리의 이웃은 그런 소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제공하는 섬김을 필요로 하며, 우리 역시 그들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라는 개념을 넘어 소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업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²⁰⁾ 칼빈은 에베소서 4장28절 주석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끓어 오르며, 변덕으로 이랬다저랬다 하며, 단번에 이것저것을 다 잡으려는 야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들을 지정해 주셨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 하셨다. 그러므로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양태는 주님이 지정해 주신 일종의 초소(哨所)와도 같아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방황 할 수 없는 것이다.” (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 중』 247-248.)

19) 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 중』 249.

20) 칼빈은 누구보다도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도입해서 직업과 노동을 인간의 의무와 과제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칼빈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택하라고 이야기한다.²¹⁾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만을 가져가고 우리의 이웃에게는 선행을 가져간다.²²⁾ 우리의 소명은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2) 노동윤리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소명을 이행하는 것과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노동을 성화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²³⁾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일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곧 하나님의 노동이다.²⁴⁾ 즉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노동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생활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노동 그 자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동이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도 다른 모든 것처럼 죄로 인해 손상되어

이기적인 이윤추구의 극대화와 탐욕적 태도를 항상 비판하였다. 칼빈은 개인주의적 부의 축적,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재산만 늘리는 것을 철저히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아무리 근면하고 열심히 노동해도 체제적 구조 악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인물이다. (정미현, “칼빈의 경제윤리와 젠더,”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2010), 185-186.)

21)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9: 로마서 빌립보서』 (서울: 성서교재간행회, 1979), 357.

22) Michael Hortan, 김광남 옮김,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서울: 이바서원, 2016), 362.

23) 황의서, 『경제 윤리』 (서울: 무역경영사, 2014), 128.

24) Bieler, Andre, 홍치모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77.

졌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거부되었기에 인간은 자기의 노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이 하나님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 불의와 억압의 원천이 된 것이다.²⁵⁾ 우리의 노동이 진정한 하나님의 노동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되면, 노동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²⁶⁾ 칼빈의 사회윤리학적 입장에서 본 노동윤리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통해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인간이 하나 됨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죄인인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만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죄의 결과는 억압과 착취이지만 은혜의 결과는 섬김과 봉사요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세상을 회복시킨다. 세상에서의 노동이 회복되어진다. 이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는 아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안에서 일하시면 노동은 고통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이 된다. 노동이 다시금 진정한 노동이 되기 위해, 노동이 더는 억압이 아닌 봉사의 원천이요, 모든 이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노동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만족감을 위한 모든 것을

25) Bieler, Andre,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71-72.

26) 황의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제16권 (2011), 288-289.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한다.

칼빈의 직업윤리와 노동윤리의 목적은 인간이 그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의 삶의 풍요를 넘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경제활동이란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섬김과 공동체를 위한 이익활동을 의미한다.²⁷⁾ 이점에서 칼빈은 구별은 있으나 차별이 없는 인간성, 서로에 대한 섬김의 의무와 공평과 평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고유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존중받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사회경제활동 즉 직업과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나의 이익이 되는 경제활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노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돈을 생각한다. 노동이 삶을 보존하고 풍부하게 하고 충만케 한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에 노동을 급료와 관련지으며 경제적 소득에 따라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²⁸⁾

직업과 노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의 척도의 기준이 되었다.

27) 칼빈은 재산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선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그의 가르침은 공산주의적 경제사상과 완전히 다르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가 사유재산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회 공동체적인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의 유무상통은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디아코니아적 삶의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사유재산을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사유재산과 상업, 이자, 경제적 이윤추구등을 오히려 인정하였고, 그 목적이 탐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 (이오갑, “칼뱅에 따른 돈과 재화,”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0집 (2014), 10-15.)

28) Soelle - Sreffensky Dorothee, 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103.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노동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부의 척도를 가늠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부의 척도는 얼마만큼 직업과 노동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칼빈은 노동의 결과인 임금이 부의 척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무상의 은혜라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 임금은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며 섬김과 봉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임금은 하나님께서 노동자에게 주시는 은사, 곧 선물이다.²⁹⁾ 임금이 신성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우리의 행복과 부의 척도가 되거나 또는 인간의 욕심으로 잉태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다. 임금이란 하나님에 의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지불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임금은 고용주나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보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³⁰⁾

고용된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력에 따른 임금을 주는 행위는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부여하신 은혜이다. 고용주는 단지 그 이웃에게 그 은혜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전달자일 뿐이다.³¹⁾ 칼빈은 우리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가로채는

29) 칼빈은 무익한 종에 대한 누기복음 17장7절의 비유를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무상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John Calvin, 『존 칼빈 성경주석 2 공관복음 II』 19.)

30) Fred Graham, 김영배,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19.

31) 칼빈에게 정당한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에게 임금이란 인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임금은 고용주에게도 그리고 노동자에게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로 여겼다. 이는 우리 이웃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악인 것이다. 칼빈은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부당하게 노략하는 폭력도 도둑질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한다.³²⁾ 특히 그는 노동자의 임금을 사취하는 일도 도둑질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노동자의 노동력만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임금지불을 미루는 행위도 도둑질과 동일하다.³³⁾ 일과 노동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기에 칼빈은 그 노동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해하는 일이요 도둑질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2. 부와 재산에 대한 칼빈의 디아코니아적 이해

칼빈은 빈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가르치고 있다.³⁴⁾ 칼빈은 빈곤과 불행을 고통받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냉대의 증거로 보지

도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때문에 칼빈은 임금의 정확한 책정기준은 바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그들의 재화와 노동으로 받는 열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함께 할 때 제대로 확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임금에 대한 이런 영적인 양심의 성찰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Bieler, Andre,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78-79.)

- 32) John Calvin, 김광삼옮김, 『칼빈의 십계명 강해』 (고양: 비전북, 2011), 259-263.
- 33) 칼빈은 부자가 불쌍하고 힘없는 개인에게 일을 시켜 놓고 그 지불을 지체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루 세끼를 빼앗는 것이요, 그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부자들의 소홀함이나 교만함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배고픔을 당하지 않도록 신명기 24장 14-15절 말씀을 비유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가난한 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치 노예인 것처럼 거만하게 다루거나 또한 그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구는 행위를 통해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John Calvin, 『구약성경주석 5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III』 (서울: 신교출판사, 1978), 83-84.)
- 34) 한상화, “칼빈의 경제윤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05.

않았다. 또한 부와 번영을 개인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나 구원을 위한 선택의 증거로도 생각하지 않았다.³⁵⁾ 그에게 부와 빈곤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총의 수로들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확증시키는 수단들이었다. 칼빈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와 목적을 디아코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한다. 신15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가난한 자의 필요를 공급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한다.³⁶⁾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부의 순환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디아코니아적 사랑이다.³⁷⁾ 우리는 하나님의 임의적인 분배의 섭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갖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인간들 사이에 부가 불균등하게 분배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의 불균등

35) Fred Graham, 김영배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91-92.

36) John Calvin, 『구약성경주석 5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III』 133.

37)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부와 디아코니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가 이 지상에 빈곤의 실재를 허용하시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은 부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덧없는 재물을 불공평하게 분배해 주신다. 그는 인간을 심사하고 계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한 증거이다. 만일 가난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의 형편이 어려울 지라도 부정행위나 다른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끈기 있게 행한다면 이것도 역시 선하고 유용한 시험이 될 것이다.”(재인용 남희수 “칼빈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조명한 목회사역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2권 (2013), 137-138.)

은 끊임없는 소유의 재분배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회적 삶은 인간의 상호 보완성과 의무적 연대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삶이다.³⁸⁾ 이러한 삶은 사랑이라는 이타적인 은사를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향하게 한다. 칼빈은 부자를 일컬어 ‘가난한 자의 봉사자’라고 했다.³⁹⁾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사랑과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보내진 자들이다. 칼빈은 신명기 24장 설교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들의 손에 주어진 물질들을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보다 큰 부요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칼빈은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와 빈곤의 신학적 입장은 확고하게 디아코니아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게 물질적인 번영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나누기 위함이지 개인의 이익과 향유만을 위함이 아니다.⁴⁰⁾

칼빈의 사회 개혁 속에 나타난 그의 경제사상의 핵심적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디아코니아 사상이다. 부유함이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경제생활의 규범이 되는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며,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사회관에 근거하

38) 김준현 “칼뱅의 경제사상,” 『신학과 사회』 15 (2001), 264.

39) Bieler, Andre,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57.

40) 그는 고린도 후서 8장 15절 주석 설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따라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상속된 것인지 자신의 근면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든, 쓰고 남은 것은 낭비와 사치용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을 덜어 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John Calvin, 『신약성경주석 9 :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서울: 신교출판사, 1978), 169-170.)

고 있다. 칼빈이 제네바시의 부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금욕주의적 삶이 아니라 사랑의 규칙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과 같이 결속되어져 있기에, 그 공동체 속에서는 물질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칼빈은 물질적인 재화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고 가르쳤다.⁴¹⁾ 돈은 이 재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써 하나님께 인간과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시는 데 이 돈을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은 그 재화를 인간에게 맡기셔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과 그가 연대할 책임이 있는 사회를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셨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실용적인 기능과 공리주의적인 기능을 넘어서 영적 사명도 가지고 있다. 돈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돈은 신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에게 하는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재화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표시가 된다.⁴²⁾ 돈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⁴³⁾ 하나님의 도구로서 돈을 이해한 사람이야말로 비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칼빈은 모든 지체 간에 재화의 상호교류라는 독특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집사직을 새로 만들었다.⁴⁴⁾ 초대

41) Bieler, Andre,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54.

42) 위의 책, 54-55.

43) 위의 책, 61.

44) 칼빈은 1541년 제네바 교회법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4가지의 직무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집사직분을 두 종류로 나누어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첫 번째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산, 즉 매일 매일의 구호금뿐만 아니라, 재산, 대출 그리고 생활 보조금을 수납하고 보관하는 일을 위임받은 자들이며, 두 번째 병자

교회를 본받아 칼빈은 돈이 영적 삶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오게 했다. 칼빈은 경제적 재화에 그 존재 이유를 되찾아 주었고 경제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봉사의 사명을 부과했다. 집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영적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재화가 교회의 모든 지체 가운데 골고루 흐르도록 재확립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모두 서로 영적인 삶과 물질적 조건 그리고 육신적 건강에 대해 서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⁵⁾

칼빈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재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곤궁을 도와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⁴⁶⁾ 칼빈은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그의 디아코니아적 섬김 사상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특히 칼빈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의 의무를 십계명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결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부정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였다.⁴⁷⁾ 더불어 그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은밀히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일,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 또는 공의보다는 사익을 더 생각하는 것도 모두 도둑질에 포함된다고 말한다.⁴⁸⁾ 더욱이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할 선행의 의무들을

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가난한 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디아코니아적 사명을 담당하는 자들로 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 한다.

(Herbert Krimm, 『Quellen zur Geschichte der Diakonie, Bd. 2. Reformation und Neuzeit』 (Stuttgart : Evangelisches Verlags.werk, 1963), 39.

45) Bieler, Andre,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67.

46) John Calvin, 원광연욱김, 『기독교 강요(상)』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501-504.

47) 위의 책, 502.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웃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 하였다. 다시 말해 칼빈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봉사의 의무를 거절하는 것도 사실상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⁴⁹⁾

나의 가난한 이웃은 나의 물질적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칼빈은 이웃의 권익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빚을 성실히 갚아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이야기한다.⁵⁰⁾ 내가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웃의 몫을 내가 도둑질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⁵¹⁾ 가난한 이웃에게 지불해야 할 빚진 것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서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실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대로 다 소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도둑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빼앗는 자도 도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 남에게 당연히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자도 도둑이라고 말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그 모든 부와 재산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간들에게 각기 다른 분량으로 부와 재산을 분배해 주셨다.⁵²⁾ 이와 같이 인간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그의 재산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청지기 일뿐이다. 만약 그 청지기가 거짓된 욕망과 사치

48) Haroutunian, Joseph,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391.

49) 위의 책, 391.

50) John Calvin, 원광연 옮김 『기독교 강요(상)』 503.

51) 위의 책, 502-503.

52) 위의 책, 502.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모두 낭비함으로써 집안의 모든 권속들을 조화 있게 돌보고 부양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수행치 아니한다면, 그는 사실상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가족과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자가 아닐 수 없다.

“빈(貧)” “부(富)”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절망적인 간격 속에 언제나 분리되어 연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돈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렸고, 하나님의 도구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고 있는 그 사명이 완전히 변질되어 맘몬주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개인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빈부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왔고 마침내 현대 산업 사회의 “부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를 가져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경제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힘의 논리로 다가온다. 이 절망적인 부와 빈곤의 간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방법은 사회적 정치적 혁명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 정치적 방법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일인가? 필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칼빈의 입장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칼빈이 살았던 500년전 시대와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지만 그의 신학 사상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살아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III. 칼빈의 디아코니아 경제윤리의 현대적 적용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가져온 문명의 이기들을 통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즐기며 살고 있다. 1,2차로 대표되는 물질적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이루어낸 3차 혁명을 거쳐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혁명시대에 살아가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과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적응하든 안하든 간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깊숙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는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진 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그와 또 반대로 수많은 과제도 안겨줄 것이다. 수많은 문제들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불평등의 문제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과 불공평의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노출되어져 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의 위기 현상일 것이다.⁵³⁾ 기술발달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자동화문제는 노동을 대신해서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이 이윤을 창출하기보다 자본이 자본을 낳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의 개념과 가치의 변화로 인해 노동은 이제 노동자와 기업의 거래관계로 바뀌었다. 이제 경제 영역이 단순히 경제 논리에만 의지한 채 이야기 되어질 수는 없다. 자유시장 경제는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켰고, 경제가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도구화가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극심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인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경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며,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53) 한국 사회는 가장 오래 일하는 사회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비밀비례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대비는 불안하여 늘 불안함속에서 살아간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낮아져만 가고 일하는 사람 중에 비정규직인 사람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현황은 658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도 남성들에 비해 낮고 여성들의 비정규직 현황(남성 294만명, 여자 368만명)이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과 같은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위한 소득 지원도 비약한 상태이다.

(http://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5 2019.02.20.)

가 살아가는 사회에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칼빈의 경제 윤리 즉 그의 경제 사상인 부, 이자,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간의 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돈이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칼빈에게 돈이란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였을 뿐이다. 돈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기 위한 우리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칼빈은 그의 경제 윤리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을 바탕으로 부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대한 균형을 이루었다. 특히 그의 재산과 물질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중요한 권고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칼빈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자”라고 지칭하면서 디아코니아적 삶을 강조하였다.⁵⁴⁾ 특히 칼빈의 사유재산에 대한 디아코니아 입장은 나의 소유가 나의 만족을 채우고 본인 자신의 향유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재산이 주는 위협은 지배이다. 재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는 흔히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한 그들의 권리조차 부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재산이 지배의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재산의 올바르게 공정한 분배와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처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사유재산은 실상 사적인 것이며 그

54) Gerhard K. Schaefer, Diakonie als "Schwaller der Armen"- Zur Diakonie bei Johannes Calvin, in Jähnichen, T, Thomas k. Kihn und Arno Lohmann, Calvin entdecken Wirkingsgeschichte - Theologie - Sozialethik (Muenster, 2010). 185-191.

것을 정당화 시키는 것은 그것의 사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사용권이다. 소유권은 재산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의미할 수 없다. 재산은 사용을 위한 것이지, 보유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소유되기 위해서는 재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고,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본성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⁵⁵⁾ 개인의 사유재산의 목적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칼빈은 사유재산으로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는 현대적 관념을 거부했다. 앙드에 비엘레가 지적한 것처럼 “돈은 두 가지 이중의 의미를 지닌 표였다. 즉 돈은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표이지만 그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자는 정죄의 표가 된다.”⁵⁶⁾

칼빈은 상업이 사회 안에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 수행하는 섭리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해 낸 최초의 신학자였다. 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상인들이 사치를 조장하게 생계비를 인상시키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칼빈은 상업 활동을 인정한 인물이었다. 물론 상업활동이 미치는 악영향에 특히 악덕 고용주, 부정직한 계약, 불량한 계량기구, 독점, 매점매석, 폭리, 과소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업이 수행하는 본래적 역할을 강조하였다.⁵⁷⁾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정의 그리고 인권문제,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는 경제적 부의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사회 계층간의 갈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갑과 을로 나누어 불공정한

55) Meeks, M. Douglas, 홍근수 이승무 옮김, 『하느님의 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159.

56) Bieler, Andre,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145.

57)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728.

거래를 일삼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등과 같은 합리적 논리 근거로 칼빈의 경제사상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⁵⁸⁾

칼빈은 노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종교개혁자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혹은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도둑질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그의 제네바 사회개혁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천에 나타나 있다. 그는 제네바의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구빈원을 세워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의회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는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한 이익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칼빈은 불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의료,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시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힘을 썼다.⁵⁹⁾ 칼빈의 노동에 대한 사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에 책임에 대해 웅변하고 있다. 칼빈의 노동에 대한 원칙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되는 불평등의 문제와 원칙 없고 부당한 해고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낳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하며 그에 따르는 대응에 대해 논리를 제공한다.⁶⁰⁾

칼빈은 노동의 보상인 임금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복음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적용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임금 수준이다. 칼빈은 임금을 책정할 때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58) 김홍섭, “존 칼빈의 경제, 경영 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 유통, 물류에의 적용 관점,” 『한국향만경제학회지』 147-169.

59)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275.

60) 최용준,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권 (2018), 333-339.

에 미리 합의에 따른 계약이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외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특히 칼빈은 국가가 가난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국가의 의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을 차지하여 사업상의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다.”⁶¹⁾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자본을 가진 자들의 시대이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한다. 그 공장에서 거둔 이익 중 일부는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수익은 자본주의가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돈이 돈을 버는 수익이 사람이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의 간섭은 국민의 선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한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착취하는 기업의 이기적인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자체도 국민의 경제적 착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편도 사회에서 생성된 부를 소유할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칼빈의 디아코니아에 입각한 그의 경제사상은 오늘날에도 특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오늘 정의와 평등과 공평과 감과 을로 대비되는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회계층간의 갈등, 고용과 임금등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IV. 나가는 말

칼빈의 디아코니아 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고 그의 신학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물론 그

61) 재인용,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730.

가 개혁을 일으킨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많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사랑, 정의, 평등과 공평의 원리 아래 펼쳐진 디아코니아적인 사회경제윤리는 여전히 우리가 적용할 보편적인 진리로 평가된다. 심각한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경제체제와 그 결과 나타난 양극화 현상,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대 우리 사회에 칼빈의 경제 윤리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이고 사회윤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칼빈의 신학사상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과 그의 경제 윤리 속에 나타난 직업, 노동, 임금 그리고 부에 대한 개념을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주제 아래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그의 경제적 디아코니아 윤리가 현대 사회에 어떻게 새롭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교개혁자이자 사회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의 경제 윤리에 나타난 직업과 노동의 개념은 이웃을 섬기는 봉사이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로 이해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칼빈의 디아코니아 경제윤리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수없이 다양한 의견들과 대립으로 인해 갈등하는 우리 사회에 칼빈의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돈, 『인간과 노동 =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 성남: 민들레책방, 2005.
- 김기린, 『종교개혁사』,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김준현 “칼뱅의 경제사상,” 『신학과 사회』 15권 (2001), 257-278.
- 김홍섭, “존 칼빈의 경제, 경영 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 유통, 물류에의 적용 관점,”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권 (2015), 147-169.
- 남희수 “칼빈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조명한 목회사역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2권 (2013), 123-154.
-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이동호, “루터의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제41집 (2018), 41-68.
- 이오갑, “칼뱅에 따른 돈과 재화,”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0집 (2014), 7-45.
-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한상화, “칼빈의 경제윤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황의서, 『경제 윤리』, 서울: 무역경영사, 2014.
- 황의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제16권 제2호, (2011), 285-312.
- 황봉환, 『기독교 경제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정미현, “칼빈의 경제윤리와 젠더,”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2010), 181-203.
- 최용준,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권 (2018), 323-351.
- Bieler, Andre, 홍치모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_____, 박성원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Fred Graham, 김영배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John Calvin, 원광연욱김, 『기독교 강요(상)』,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_____, 원광연욱김, 『기독교 강요(중)』,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_____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 2: 공관복음 II』, 서울: 신교출판사, 1978.
-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 9: 로마서 빌립보서』, 서울: 성서교재간행회, 1979.
- _____, 『신약성경주석 9 :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서울: 신교출판사, 1978.
- _____, 김광삼 옮김, 『칼빈의 십계명 강해』, 고양: 비전북 2011.
- _____, 『구약성경주석 5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III』, 서울: 신교출판사, 1978,
- Haroutunian, Joseph,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3.
- Max Weber, 김현욱,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사회학 근본개념』, 서울: 동서문화사, 2010.
- Michael Hortan, 김광남 옮김,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서울: 이바서원, 2016.
- Meeks, M. Douglas, 홍근수 이승무 옮김, 『하느님의 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 Soelle - Sreffensky Dorothee, 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 Herbert Krimm, 『Quellen zur Geschichte der Diakonie. Bd. 2. Reformation und Neuzeit, Stuttgart : Evangelisches Verlags,werk 1963.
- Gerhard K. Schaefer, Diakonie als "Schwaller der Armen"- Zur Diakonie bei Johannes Calvin, in Jähnichen, T, Thomas k. Kihn und Arno Lohmann, Calvin entdecken Wirkingsgeschichte -Theologie - Sozialethik, Muenster 2010.

http://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5 2019.02.20.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22일

• 국 문 초 록 •

점점 더 커져가는 일반소비현상과 소수 부유층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와 낭비,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대비되는 갑질 문제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으로 인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아프게만 하고 있다. 물질적 부와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 상황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 현실 게다가 각자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일의 성취 보다는 타고 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집안의 배경과 조건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사회이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칼빈의 디아코니아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그러나 칼빈의 신학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디아코니아의 시작이요 실천의 장소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 아래 칼빈의 경제윤리 속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사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칼빈의 경제윤리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자아부정이라는 가르침과 둘째 사회 경제 윤리와 관련된 칼빈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의 디아코니아적 견해를 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칼빈의 사회경제 윤리적인 디아코니아 신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칼빈, 경제윤리,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직업윤리, 노동윤리
